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김 화 수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이 은 경*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 요 약 》

이 연구는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별 및 성별 언어발달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생활연령이 2세에서 6세인 765명(남아 383명, 여아 382명)의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령에 따른 표현언어와 수용언어로 분류하여 실시하였고, 표현언어 및 수용언어능력에 대한 연령별 집단 간 차이와 성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은 연령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 차이는 없었다. 둘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은 연령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 차이는 없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에서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은 연령별 언어발달의 추이가 일반 아동과 유사했으나 발달의 정도는 느리며 발달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이중언어환경, 취학전 아동, 언어능력, 언어발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든 문화는 언어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저마다의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Pence, Justice, 2008), 그러한 문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는 일생동안 하나 이상의 언어를 습득한다(Grabe, 2002). 언어를 습득해 나가고 있는 영유아나 아동

* 교신저자(eklee129@hanmail.net)

들은 언어사용을 통해 또는 원활한 언어의 사용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을 배움으로써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취학전 아동들은 많은 단어와 구문능력, 언어기능을 습득하는데, 특히 이 시기 동안에는 1년에 860단어, 즉 매일 평균적으로 약 2개의 새로운 단어를 습득한다(Biemiller, 2005). 또한 이러한 많은 어휘의 습득과 더불어 사용하는 문장의 형태가 정교해지며 이들의 화용적 능력은 담화기능, 대화기술, 이야기기술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인다(Pence, Justice, 2008).

아동의 연령별 언어발달을 살펴보면 2세에는 두단어를 조합하여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언어발달은 사회성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독립성을 주장하려는 욕구 때문에 요구하기와 거부하기의 화용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3세에는 세단어 이상의 문장을 사용하며 특히 상상하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상징놀이와 역할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능력이 증가한다. 4세가 되면 구나 절이 포함된 비교적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며 표현하게 된다. 처음에는 나열식 문장을 사용하지만 차차 인과관계가 포함된 다양한 복문이 나타난다. 이때 아동은 성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며 과시하기, 자랑하기 등의 의사소통 기술도 나타난다. 5세가 되면 4세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덜 사용하게 되고 현실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좀더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또래와의 협동놀이 등을 통해 기본적 구조를 갖춘 이야기를 산출하게 된다(Hoff-Ginsberg, 1997). 특히 취학전 아동의 언어발달은 언어의 내용, 형식, 사용에서 급속히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다. 점차 성인 형식에 가까운 문장을 사용하게 되고, 인지적 사회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언어발달의 속도와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남아와 여아의 언어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일반아동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데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성차에 따른 언어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어 및 두단어 조합 시기에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이 남아에 비해 여아가 빠르다고 한 연구(Bauer, Goldfield, Reznick, 2002; Fenson, Bates, Dale, Goodman, Reznick, Thal, 2000; Van Hulle, Goldsmith, and Lemery, 2004)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이지연, 장유경, 2005)가 있다.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 환경적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모든 발달은 태내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태아는 태내에서 어머니와 교류를 하면서 성장하고, 태어나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의사소통을 배우게 된다. 또한 성장하고 자라서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듯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장기에 있어서 특히 언어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결혼이주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어머니의 언어능력 특히 한국어 능력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능력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상북도 교육청 2010년 보고에 따르면 유치원생의 경우 2007년 135명, 2008년 236명, 2009년 360명, 2010년 493명으로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정책은 주로 언어발달, 특히 우리말 습득과 이중언어발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고, 다양한 지원과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 특성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음운, 어휘, 수용언어발달에 대한 몇몇 연구들만 있을 뿐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김화수, 2008; 이은경, 석동일,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발달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규모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의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의 발달특성은 어떠한가?

- 1)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별 수용언어능력은 어떠한가?
- 2) 연령에 따른 성별 수용언어능력은 어떠한가?

둘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의 발달특성은 어떠한가?

- 1)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별 표현언어능력은 어떠한가?
- 2) 연령에 따른 성별 표현언어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청각적, 시각적, 행동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 2~6세 다문화가정 아동 765명(남아 383명, 여아 3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은 2세 186명(남아 97명, 여아 89명), 3세 217명(남아 106명, 여아 111명), 4세 204명(남아 106명, 여아 98명), 5세 111명(남아 52명, 여아 59명), 6세 47명(남아 22명, 여아 25명)으로 전체 평균연령은 47.35개월이었다. 연구 대상의 연령별 및 성별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령별, 성별 전체 연구 대상의 특성

연령	연구 대상 수	성별		평균월령	표준편차
		남아	여아		
2세	186	97	89	30.29	3.14
3세	217	106	111	41.39	3.44
4세	204	106	98	53.18	3.23
5세	111	52	59	64.60	3.50
6세	47	22	25	76.42	2.94
전체	765	383	382	47.35	14.00

연구 대상 어머니의 출신국은 베트남 25.3%(193명), 중국 21.8%(167명), 필리핀 18.0%(138명), 일본 9.0%(69명), 기타 25.9%(198명) 순이었다. 연구 대상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 정보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분포

연령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기타	합계
2세	66	54	20	12	34	186
3세	68	32	27	19	71	217
4세	41	53	40	16	54	204
5세	15	21	35	14	26	111
6세	3	7	16	8	13	47
합계(%)	193(25.3)	167(21.8)	138(18.0)	69(9.0)	198(25.9)	765(100)

2. 연구 대상 선정 및 검사 도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은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2008)로 평가하였다. 언어능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 특성을 분석하였다.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김영태 외, 2008)는 2~6세 아동들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15개의 단계로 수용언어는 일상사물 및 동물 이름 이해, 지시따르기, 동작어 이해, 시제이해, 간접적인 표현 이해, 설명문 이해, 관형구 이해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현언어는 어휘사용, 단순한 질문사용, 연결어미 사용, 상황 설명, 시제 사용, 이야기 재구성, 질문에 대답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 수집 및 절차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자료 수집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연구 대상을 모집하였다. 언어검사는 검사에 동의한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나 기타의 이유로 어머니가 보고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다른 가족에게 답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검사자와 아동 또는 주양육자와 충분한 라포형성을 한 후 1회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자료 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7.0을 이용하였다.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2세, 3세, 4세, 5세, 6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령에 따른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능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령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성별 간 언어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t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특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2~6세의 아동을 1년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수용언어 능력과 표현언어능력을 알아보았다.

1.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의 발달특성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검사(김영태 외, 2008)를 실시하였다. 수용언어점수는 검사 의 원점수로 계산하였다. 연령간 수용언어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성별 간 언어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t 검정을 실시하였다.

1) 연령 집단 간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

연령 집단 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은 언어검사의 원점수로 계산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 집단은 2세, 3세, 4세, 5세, 6세 집단 다섯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용언어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령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

연령	평균	표준편차	범위
2세	10.34	7.03	1 ~ 44
3세	22.52	9.18	1 ~ 60
4세	31.86	9.71	2 ~ 58
5세	39.06	10.95	4 ~ 60
6세	44.80	10.26	20 ~ 60

2세 집단은 수용언어 평균점수가 10.34점이었으며, 최소 1점, 최대 44점이었
다. 3세 집단의 수용언어 평균점수는 22.52점이며, 최소 1점, 최대 60점이었
다. 4세 집단의 수용언어 평균점수는 31.86점이며, 최소 2점, 최대 58점이며, 5세 집단이
수용언어 평균점수는 39.06점이며, 최소 4점, 최대 60점이다. 6세 집단이 수용언어
평균점수는 44.80점이며, 최소 20점, 최대 60점이었
다.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 점수를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연령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 < .001$, $F_{(4, 760)} = 267.082$). 연령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
어능력에 대한 평균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연령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에 대한 분산분석

	표준편차	자유도	평균자승	F
연령 집단 간	90765.741	4	22691.435	267.082*
집단 내	67570.081	760	84.961	
합계	155335.822	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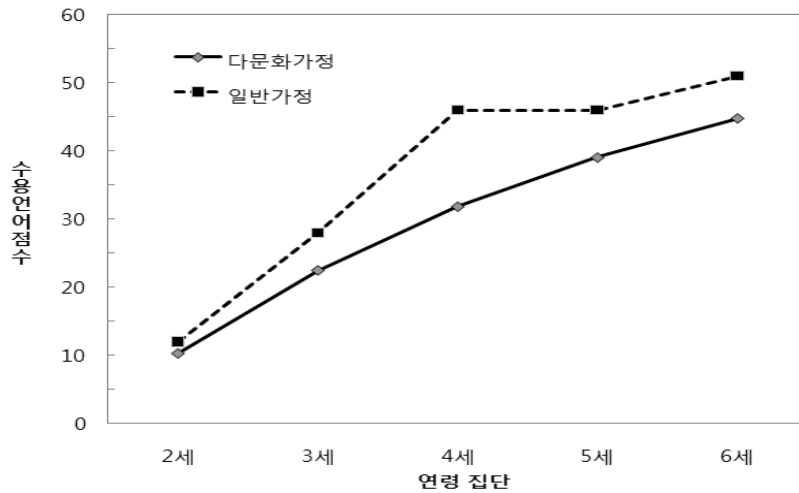
* $p < .001$

<표 5> 연령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 평균점수의 사후검정 결과

	2세	3세	4세	5세	6세
2세		*	*	*	*
3세			*	*	*
4세				*	*
5세					*
6세					

연령 간 수용언어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모든 연령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연구 대상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 765명의 수용언어 평균점수와 일반 아동 621명의 수용언어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령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

일반 아동의 수용언어 점수는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김영태 외, 2008)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2세 집단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 아동과 수용언어 평균점수가 1.66점 낮게 나타났고, 3세 집단은 5.48점, 4세 집단은 14.14점, 5세 집단은 6.94점, 6세 집단은 6.2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일반 아동에 비해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2세 집단에서는 유사하였으나 연령이 높으면 큰 점수차를 보였다. 특히 4세 집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 연령에서는 수개념, 감성상태어, 복수이해, 시제이해, 내포문이해 등이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취학전 다문화가정아동의 경우 이 항목에서 낮은 수행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수용언어능력을 비교한 오소정 등 (2009)의 연구와 결과가 유사하였는데, 오소정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아동 33명 중 18%가 언어발달지체나 장애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이해능력을 비교한 김경미(2008)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수용언어능력의 근간은 어휘이해능력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이해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 점수의 차이가 심화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2) 연령에 따른 성별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

취학전 다문화가정 남아 383명, 여아 382명을 대상으로 수용언어 검사를 실시하였다. 남아는 평균 24.90점, 여아는 평균 26.74점이었으며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간 t 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6>와 같고, 성별 집단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6> 남아와 여아의 평균 수용언어점수에 대한 차이 검정

	아동수	평균	표준편차	t
남아	383	24.90	14.28	-1.792
여아	382	26.74	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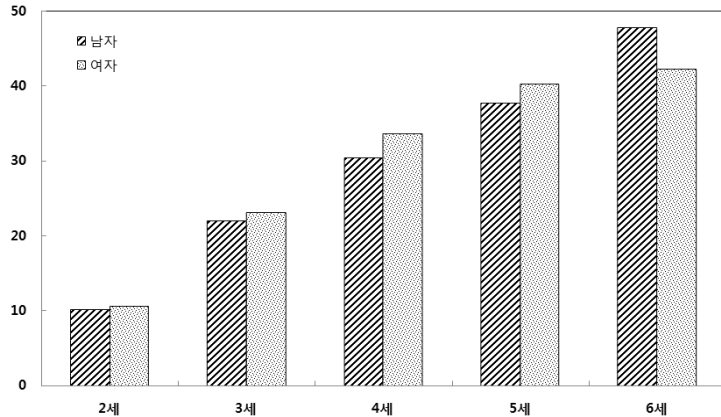
* $p < .001$

성별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점수를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2세, 3세, 4세, 5세, 6세 집단 모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연령에 따른 성별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점수

연령	성별	평균	표준편차
2세	남자	10.09	6.21
	여자	10.61	7.85
3세	남자	22.00	9.61
	여자	23.01	8.75
4세	남자	30.32	9.56
	여자	33.53	9.65
5세	남자	37.71	11.84
	여자	40.25	10.05
6세	남자	47.72	10.85
	여자	42.24	9.16

남아와 여아의 수용언어 평균점수를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2세, 3세, 4세, 5세, 6세 집단 모두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성별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의 변화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연령에 따른 성별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

유승애(2009)는 4~6세 다문화가정 아동 42명(남아 14명, 여아 28명)을 대상으로 구문의미이해력과 그림어휘력을 측정하여 남아와 여아 간 성차를 비교하였는데 성별에 따른 능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윤혜련 등(2003)은 109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수용언어능력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 간에 성차를 비교하였는데 성별에 따른 수용언어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765명(남아 383명, 여아 382명)의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의 발달특성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검사(김영태 외, 2008)를 실시하였다. 표현언어검사는 언어검사의 원점수로 계산하였다. 연령간 표현언어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성별 간 언어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t 검정을 실시하였다.

1) 연령 집단 간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

연령 집단 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은 언어검사의 원점으로 계산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 집단은 2세, 3세, 4세, 5세, 6세 집단 다섯 집단으로 분류하여 산출한 표현언어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연령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

연령	평균	표준편차	범위
2세	11.44	6.82	1 ~ 56
3세	19.79	8.04	1 ~ 54
4세	30.37	9.96	2 ~ 56
5세	36.20	10.83	3 ~ 56
6세	41.45	10.38	13 ~ 56

2세 집단은 표현언어 평균점수가 11.44점이었으며, 최소 1점, 최대 56점이었다. 3세 집단의 표현언어 평균점수는 19.79점이며, 최소 1점, 최대 54점이었다. 4세 집단의 표현언어 평균점수는 30.37점이며, 최소 2점, 최대 56점이며, 5세 집단의 표현언어 평균점수는 36.20점이며, 최소 3점, 최대 56점이다. 6세 집단의 표현언어 평균점수는 41.45점이며, 최소 13점, 최대 56점이었다.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 점수를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F_{(4, 760)} = 216.086$). 연령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에 대한 평균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연령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에 대한 분산분석

	표준편차	자유도	평균자승	F
연령 집단 간	69203.074	4	17300.769	216.086*
집단 내	58927.398	760	80.064	
합계	128130.472	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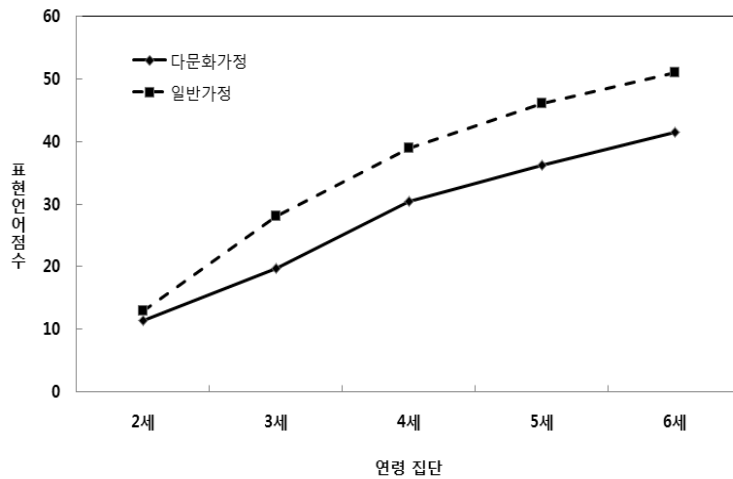
* $p < .001$

<표 10> 연령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 평균점수의 사후검정 결과

	2세	3세	4세	5세	6세
2세		*	*	*	*
3세			*	*	*
4세				*	*
5세					*
6세					

연령 간 표현언어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이 연구 대상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 765명의 표현언어 평균점수와 일반 아동 621명의 표현언어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령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

일반 아동의 표현언어 점수는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김영태 외, 2008)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2세 집단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 아동과 표현언어 평균점수가 1.56점 낮게 나타났고, 3세 집단은 8.21점, 4세 집단은 8.63점, 5세 집단은 9.80점, 6세 집단은 9.5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일반 아동에 비해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2세 집단에서는 차이가 적었으나 3세, 4세, 5세, 6세 집단은 점수차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문에 대한 대답, 어려운 의문사 사용, 문법형태소의 사용, 마찰음 및 파찰음 등의 소리모방, 문장모방, 문제해결의 표현 및 연결어미의 사용과 같이 표현을 위한 언어발달 과업을 성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이러한 언어표현에서 수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신영(2003)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문법형태소 사용 능력이 낮았다고 하였고, 임동선(2001)은 5~7세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품사별 오류형태에 관해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 아동과 유사한 품사별 오류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에게서만 나타나는 오류형태가 있었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을 연구한 오성숙(2009)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아동은 우리말 자극의 부족으로 인하여 문법형태소의 기능이나 복잡한 구문구조를 가진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Li 등(2005)의 연구로도 뒷받침된다. 정은희(2004)는 전라남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세 ~ 5세의 다문화가정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표현언어능력을 살펴 보았는데, 대상아동의 68%가 표현언어발달 지체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표현언어발달이 늦다는 연구 결과는 이수정 등(2008)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 연령에 따른 성별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

취학전 다문화가정 남아 383명, 여아 382명을 대상으로 표현언어 검사를 실시하였다. 남아는 평균 23.51점, 여아는 평균 25.30점이었으며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간 *t* 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11>와 같고, 성별 집단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1> 남아와 여아의 평균 표현언어점수에 대한 차이 검정

	아동수	평균	표준편차	<i>t</i>
남아	383	23.51	13.24	-1.854
여아	382	25.30	1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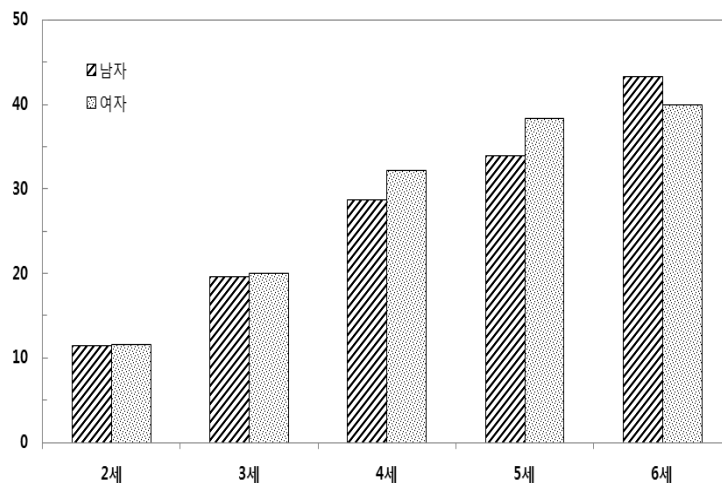
**p*<.001

성별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점수를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2세, 3세, 4세, 5세, 6세 집단 모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연령에 따른 성별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점수

연령	성별	평균	표준편차
2세	남자	11.33	7.32
	여자	11.55	6.28
3세	남자	19.57	9.13
	여자	20.00	6.90
4세	남자	28.72	10.22
	여자	32.15	9.40
5세	남자	33.84	11.53
	여자	38.28	9.82
6세	남자	43.22	10.50
	여자	39.83	10.21

남아와 여아의 표현언어 평균점수를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2세, 3세, 4세, 5세, 6세 집단 모두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성별 집단에 따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의 변화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 연령에 따른 성별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

2세, 3세 집단은 성별 간 표현언어 점수에 차이가 적었다. 4세, 5세 집단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6세 집단에서는 오히려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연령은 다르지만 성별에 따라 표현언어능력의 차이가 없었다는 이지연과 장유경(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표현언어능력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 간에 성차를 비교한 윤혜련 등(2003)의 연구에서는 16개월 미만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16~21개월 이후에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 집단 간 차이와 성차에 의한 언어발달 특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 76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은 연령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성별 간 차이는 없었다.

둘째,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은 연령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표현언어발달에 있어 6세 집단을 제외하고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은 연령별 발달의 추이가 일반 아동과 유사했으나 발달의 속도는 느리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격차가 커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대규모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발달 양상을 살펴본 것으로 2~6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6세 집단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유의하지는 않지만 남아의 수용 및 표현언어 점수가 여아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7세 이상의 학령기 집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라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언어발달 양상을 보았으나 세부적인 언어 영역별 발달 양상에 대한 분석은 실시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음운, 구문, 의미, 형태, 화용의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구체적인 언어발달 양상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교육청 (2010). **다문화교육 워크숍**. 대구대학교.
- 김경미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 및 관련 변인**. 언어병리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영태, 성태제, 이윤정 (2008).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이중언어발달. **다문화교육중재연구**, 1(1), 51-52.
- 박미란 (2009).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특성비교**.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박신영 (2003). **이야기 회상 과제를 통한 영어-한국어 이중언어사용 아동의 조사와 어말어미 사용분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지윤 (2007).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 (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 8(1), 137-161.
- 유승애 (2009). 4, 5, 6세 **다문화가정유아의 언어발달실태**. 건국대학교 대학원.
- 윤혜련, 김화수, 김영태 (2003). 성별에 따른 영·유아 언어발달의 특성연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03년 가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15.
- 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 이은경, 석동일 (2010). 다문화가정 청각장애아동의 조음음운특성에 대한 사례연구. **언어치료연구**, 19(1), 61-71.
- 이지연, 장유경 (2005). 영아초기 어휘발달의 특성: 8~18개월 영아의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105-123.
- 임동선 (2001).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아동의 품사별 오류유형 분석**.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2), 33-52.
- 최은정, 윤은미, 이소희, 이은경 (2008).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능력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3), 1-16.
- 황혜신, 황혜정 (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 Barnes, S., Gutfreund, M., Satterly, D., & Well, C. (1983). Characteristics of Adult Speech which Predict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10(1), 381-394.
- Bauer, D. J., Goldfield, B. A., & Reznick, J. S. (2002). Alternative approaches to analyz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ate of early vocabulary development. *Applied Psycholinguistics*, 23, 313-335.
- Bialystok, E. (2007). Language acquisition and bilingualism: Consequences for a multilingual social. *Applied Psycholinguistics*, 28, 393-397.
- Biemiller, A. (2005). Size and sequence in vocabulary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hoosing words for primary grade vocabulary instruction. In E. H. Hirbert & M. Kamil (Eds.),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Bringing research to practice* (pp. 223-245). Mahwah, NJ: Erlbaum.
- Catts, H. W., & Kamhim, A. (2005). *Language reading disabilities (2nd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Fenson, L., Bates, E., Dale, P., Goodman, J., Reznick, J. S., & Thal, D. (2000). Measuring variability in early child language: Don't shoot the messenger. *Child Development*, 71, 323-328.
- Grabe, W. (2002). Applied linguistics: An Emerging disciplin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R. A. Kaplan (Ed.), *The Oxford handbook of applied linguistics* (pp. 3-1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ff-Ginsberg, E. (1997). *Language development. California*: Thomson, Inc.
- Kuder, S. J. (2008). *Teaching students with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abilities (3rd ed.)*. Boston: Allen and Bacon.
- Li, Y., Guan, Y., Tao, S., & Dong, Q. (2005). The development of emerging literacy in English among preschool children. *Psychological Science(China)*, 28(6), 1361-1365.
- Lindsey, K., Manis, F., & Bailey, C. (2003). Prediction of first-grade reading in Spanish-speaking English language learn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3), 482-494.
- Manis, F. R., Linsey, K., & Bailey, C. (2004). Development of reading in grades K-2 in Spanish-speaking English language learners.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and Practice*, 19(4), 214-224.
- Páez, M. M., Tabors, P. O., & López, L. M. (2007). Dual language and literacy development of Spanish-speaki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8, 85-102.
- Pence, K. L., & Justice, L. M. (2008). *Language Development from Theory to Practice*.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 Van Hulle, C. A., Goldsmith, H. H., & Lemery, K. S. (2004). Genetic environmental, and gender effect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oddler expressive languag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904-912.

A Study on Languag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the Preschool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Wha Soo, Kim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Eun Kyoung, Lee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ability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using the PR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65 multicultural family preschool children aged between 2 years and 6 years. As the results, language development of th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were different by age group. The difference gap is bigger in the older age groups. However, there were not difference by gender.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bilingual environment, language characteristics, age, gender, preschool children

논문 접수: 2010. 07. 31 심사 시작: 2010. 08. 12 게재 확정: 2010. 09. 16